

누구를 위한 양곡관리법인가



한 용 수 역
돌직구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23일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7일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전제된 입법을 할 수 없다면서 여야 합의 이후 표결을 주문했다. 김 의장은 한 번 더 여야가 협상하고,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추후 열리는 첫번째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겠다고 했다.

이날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수정 제안을 받아 정부의 쌀 의무매입 재량권을 확대한 수정안이었다. 당초 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 전년 대비 쌀값 하락이 5% 이상일 경우 의무매입토록 했으나, 수정안은 초과 생산량은 3~5%로, 가격 하락 폭은 5~8%로 의무매입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쌀 의무매입 재량권을 넓혀준 것이다.

여야가 추가 협상을 하더라도 법안의 골자인 쌀 의무매입이 그대로 들어간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여당이 법안을 반대하는 본질적 이유는 정부의 의무매입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쌀 값 하락의 근본 문제가 공급 과잉인데, 의무매입은 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농가에서도 쌀 공급이 증가해 쌀 값이 떨어진다고 해도 정부가 매입해주니 벼농사를 줄일 이유가 없다는 메시지로 볼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쌀 의무매입 제도화는 본질적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이기에 받아들이 수 없다”면서 “3월 본회의까지 계속 협의해보고 처리가 되면 별도의 장관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 자료를 보면, 양곡관리법 개정안 시행시 오히려 쌀 과잉 규모가 증가하면서 쌀 가격은 떨어지고, 2030년 의무매입 비용은 1조4000억원이 넘을 것이라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지금도 매년 쌀 수급관리에 드는 예산이 1조303억원 규모로 지난해 농업예산의 약 6.1%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쌀 수급 관리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쌀 적정 생산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전략작물 직불금 1121억원을 주력으로 지자체와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벼 재배

면적을 전년 대비 3만7000헥타르(ha) 줄인 69만헥타르 수준으로 감축키로 했다. 이를 달성할 경우 수확기 산지 쌀값은 약 5% 오르고, 격리 비용은 4400억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콩이나 하계조식료 등 타작물과 가공용 가루쌀 생산을 확대해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양곡관리법을 도입해 쌀 의무매입을 하지 않더라도 쌀 수급 안정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다.

쌀 의무매입이 제도화하면 수혜자는 벼농가인데, 농민단체들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농민단체는 “막대한 돈을 투입해도 쌀 값이 하락한다면 예산운용 효율성을 고려해 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쌀 시장격리 비용을 차라리 타작물 육성을 위한 비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쌀 수급안정 정책의 공과는 정부 몫이다. 법안이 정부 정책 방향과 엇박자를 내며 오히려 쌀 수급 정책을 망칠 가능성도 있다. 이미 법안의 효용 가치가 없다는 근거들이 나온 상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세종=hys@metroseoul.c

SVB와 낙관론의 ‘착각’



기지 수첩
구 남 영
(금융부)

미국 스타트업들의 자금줄인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에 이어 시그니처은행도 폐쇄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졌다. 특히 40년동안 버틴 은행이 무너지는 데 불과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충격이 더 컸다.

그러나 아직까지 업계선 ‘낙관론’이 우세하다. 현재 미 정부와 우리 당국은 SVB 파산이 금융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13일 시그니처 은행이 폐쇄한 당일도 국내 주식시장은 코스피·코스닥 시장 모두 강보합세로 장을 마감했다.

비트코인도 2만 달러 부근에서 등락을

보였지만, 국내에서 ‘돈 나무 언니’로 알려진 캐시 우드(Cathie Wood) 아르케스트라트 최고경영자(CEO)은 여전히 비트코인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했다.

이처럼 SVB파산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여파는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다만, 이같은 낙관론이 ‘이번에는 다르다’는 착각으로 전환되서는 안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예일대 경제학 교수가 출간한 ‘버블 경제학’에 따르면 ‘이번에는 다르다’는 믿음이 시장심리의 전염력을 강화시켜 버블과 그 붕괴를 불렀다고 설명한다.

실버 교수는 예를 들어 2006년 버블 붕괴 이전 2년간 가격 하락을 알려주는 조짐이 나타났지만 주목 받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연준 관계자들과 만나 사태 대책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금융환경이 급변하면서 지금까지 파악이 불가능했던 악재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국내 금융시장도 25년전 IMF 외환위기 당시 부실 은행 폐쇄 이후 저축은행의 연쇄 파산을 경험했던 만큼, SVB사태에 특별히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SVB 파산은 예금이 쏠린 국내 은행에 시사하는 바도 적지않다. 만약 이번 사태가 국내 실물경제에 과급되어 불확실성이 확대된다면 그나마 회복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다시 불거질 수도 있는 문제다. 이번 파산 사태를 기회로 삼아 경감식을 가지고 금융당국의 선제적 대응 노력이 절실하다. /koogija_tea@

오늘의 운세3월 14일 (음 2월 23일)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남을, 48년생 미래의 예측은 단순히 길흉화복에만 초점을 맞춘 것 이상의 의미를 부여한다. 60년생 안락함에 처하면 위태로움도 동반. 72년생 허황된 꿈은 버려라. 84년생 이름을 떨칠 낭만이 있는 듯.

 소

37년생 열정이 빛나는 하루. 49년생 지혜가 작을수록 걱정만 는다. 61년생 타협과 양보로 차이를 좁혀라. 73년생 우리 개는 순해요 하면 사람이 잘못해서 다치는 것이란 말인가 개 목줄 할 것. 85년생 높은 구두신고 계단왕래 조심히.

 호랑이

38년생 좋은 풍습으로 나쁜 폐단 줄이자. 50년생 공짜게서는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 했다. 62년생 음식을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식욕을 더 돋우기도. 74년생 차 바꾸면서 빚지지 말 것. 86년생 영업은 능동적으로.

 토끼

39년생 고정관념을 버리고 세상을 바라보라. 51년생 산이 깊으면 골짜기도 깊듯이 큰 이익 뒤에는 큰 손실도 따른다. 63년생 배우자의 고집으로 난감한 하루이다. 75년생 찬란한 태양이 나올 응원. 87년생 선순환 적으로 진행되는 하루.

 양

40년생 청소하니 마음이 편하다. 52년생 물이 가득차면 넘쳐흐르기 마련. 64년생 직장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다. 76년생 비빌 언덕이 절실히 필요하다. 88년생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쳐서 바로 잡아야지 남에게 억지 부려야 되겠는가.

 뱀

41년생 자기분수대로 사는 것. 53년생 재물이 늘어날수록 겸손해보라. 65년생 게으른데서 부부사이 멀어질까 걱정된다. 77년생 죽고 사는 것은 명(命)에 있고 부자와 귀하게 되는 것은 하늘에 있다했다. 89년생 처음 먹은 일을 밀고 나가자.

 말

42년생 무조건 복달라고 비는 것이 기도가 아닐 것. 54년생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이니 해보자. 66년생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니 겸손. 78년생 빨강색이 행운을 가져오니 기분전환 된다. 90년생 불평은 운을 몰라가게 하는 요소.

 양

43년생 아들이 깊으니 별이 더 밝아진다. 55년생 개가 사람을 물고 다치지 않게 적극적인 에티켓을 지키며 키울 것. 67년생 누구나 현실에서 사는 것. 79년생 이상의 유혹이 있는 날이니 주의. 91년생 자기변명에 상대를 피곤하게 한다.

 원숭이

44년생 오래 산다는 것이 축복이 되도록. 56년생 카페에서 모임을. 68년생 반려견이나 반려묘는 말 그대로 가족이니 때리지 마라. 80년생 뚝단배 가듯이 순조롭다. 92년생 부모님말씀을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는 마이동풍을 후회.

 닭

45년생 한밤중에 산에 올라서 야호를 외친다. 57년생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니 일의 진전이 빠르다. 69년생 비난과 불평이 있어도 몸을 가다듬으면 가피가 열린다. 81년생 용돈을 아껴 써야. 93년생 지혜가 생기도록 고서古書를 읽어보자.

 돼지

46년생 짧은 시간이라도 운동을. 58년생 맑은 쉬위로 주위 담을 수 없다는데. 70년생 세상에 나쁘기만 한 일은 없다. 82년생 성공은 나 자신이 좀 더 노력하기를 바란다. 94년생 역사는 승자의 기록에 좌우된다는 것은 개인사도 마찬가지.

 돼지

47년생 디지털기로 고충을 겪으니 불편. 59년생 단명팔자라도 선업을 쌓아 가면 명을 늘리게 된다. 71년생 시간을 아껴서 기술력을 키우면 어떨지. 83년생 분수가 지나치면 있는 것도 잃게 되니. 95년생 번개가 치니 천둥소리도 곧 들린다.

김상회의四季

사주학 풀이 ⑮

화요일 신미일辛未(양羊)이다. 고기 찢 의복을 제공해 주는 양羊 미未 염소는 없어서는 안 될 짐승이다. 양은 유대인 팔레스타인의 거칠고 바라볼 것이 없는 산지의 풀과 그루터기에 돌아나는 새싹을 뜯어먹으며 살아갈 수 있었다. 동아시아에서 양은 십이지十二支의 하나이다. 성경에서 양은 제사용 희생으로 사용되었으며 종종 온순하고 어리석은 백성에 비유됐다. 알려지기로는 식용을 위해 이미 신석기시대부터 개를 이용해 집단적인 양떼들의 가축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술戌은 미未의 양지養地인데 개가 양떼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림이고 늑대가 양을 덮치면 곧 술미형戌未刑이 된다. 이런 형제의 물상은 소송과 쟁투로 이어진다. 고사에는 양과 개를 싸잡아 하찮은 것에 비유한 예가 많다. 견양犬羊은 곧 별 볼일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재능이 없는 바탕을 두고 견양지질犬羊之質이라 한다. 축술형이 성립되면 축중계수丑中癸水와 술중무토戌中戊土가 짝을 이뤄 축술丑戌의 기물器物은 파괴된다. 미未는 축곡과도 형제한다. 여기에는 별다른 생의生意가 없기에 소 양 둘 다 힘을 잃게 된다.

사정이 이리하면 문망주우양蚊?走牛羊이라 모기와 등에 마저도 소와 양을 쫓아 시달리게 된다. 축술미와 달리 인신사寅申巳 삼형三刑에는 생의 의미가 나타난다. 사巳는 인寅에서 생하고 신申은 사巳에서 생한다. 양은 온순하고 겁이 많지만 위협을 받으면 몹시 난폭해지기도 한다. 뜻밖의 사고와 재난을 암시하는 성분이 양인羊刃이다. 호랑이도 양으로 인해 채만을 구긴다. 거죽은 훌륭해도 실속이 없으면 양질회피羊質虎皮라 한다. 인寅은 미未에서 입묘入墓하는 까닭이다. 양이 무사할리 없다. 미未는 인寅에서 사死한다. 그래서 인미寅未 귀문鬼門이 무서운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146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250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세로 4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파를
사라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도쿠65 | 10,000원

		6		4				3
				1	7	3		6
	5			2				
6								1
			3		7			
	4							2
				6				5
5			2	8	4			
1				3		6		

		7		4				
			6					
1	4						6	
5								9
				7		3		
7								5
			4					3
							4	
					2		6	

정답

6	7	9	5	8	2	1
1	8	2	7	8	2	6
8	9	2	1	9	6	2
2	2	8	9	1	8	9
7	9	6	2	9	8	1
1	8	2	6	7	8	9
2	8	7	6	2	9	1
9	6	9	8	2	1	7
8	2	1	8	7	9	6

2	9	9	2	7	6	8
2	1	7	9	8	8	2
8	8	6	2	9	1	7
9	8	8	7	6	2	1
9	2	1	8	9	2	6
6	7	2	8	1	9	8
8	9	9	6	2	8	7
7	2	8	1	2	9	9
1	6	2	9	8	7	9

과·반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